

전북지역 불교대학 체육대회 열려

무주불교대학 우승

전북사암승가회(회장 원행, 금산사 주지)는 10월 3일 무주 예체문화관에서 '하나되어 미래의 지평을 열자'는 전북지역 불교대학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10월 3일 열린 전북 불교대학 체육대회.

올해 8회를 맞은 행사에는 전북사암승가회 스님들을 비롯해 흥화표 무주군수 등 지역기관장들이 참석했다. 화엄·전북·이리·남원·무주 불교대학 등 전북지역 불교대학 재학생 및 동문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한 행사는 배구, 테니스, 단체 줄넘기, 탁구, 단체 달리기, 화합의 줄다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속에 열띤 응원이 펼쳐졌다.

전북사암승가회 원행 스님은 "서로 관용하며 힘써 도우면 일의 성취가 어렵지 않다. 대화합, 대도약의 큰 명제를 세우고 화합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백호 전북신도회장은 "예정

이날 열린 다수의 경기에서 심판 맡은 전북포교사단 김진수 단장은 "불교대학 체육대회는 경쟁과 승패를 떠나 불자들의 화합과 치목을 도모하고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자리"라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체육대회에는 무주불교대학이 우승, 화엄불교대학이 준우승, 전북불교대학이 응원상을 수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10분이면 생명 구해요"

광주생명나눔 10주년 골수·장기기증 캠페인



10월 9일 광주시청사에서 열린 골수 및 장기기증 캠페인에서 어린이들이 명예헌혈증을 들고 있다.

"친구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유치원생들의 팔방팔방한 목소리가 광주시청사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난치성 환우들을 위한 생명나눔의 장이 펼쳐졌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 이하 광주생명나눔)는 10월 9일 광주광역시와 함께 시청 1층에서 골수 및 장기기증 캠페인을 진행했다.

광주생명나눔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사로 운예중 사무국장은 "10만 수고하면 난치병 어린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캠페인에 동참한 광주 연화사 유지원스님은 명예헌혈증을 만들어와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골수조직검사를 위한 3cc 채혈에 동참한 이순희(27)씨는 "작은일이지만 아픈 아이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 많은 시민들이 캠페인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생명나눔 10주년 행사는 골수 및 장기기증 캠페인에 이어, 18일 '환우가족과의 만남' 가을소풍을 떠났다. 19일 생명나눔 환우 친도재를 무등산 원효사에서 봉행하며, 22일 5·18기념관에서 난치성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를 개최한 것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어르신 헌신에 보답해요"

미륵사 실비노인요양시설 '백양실버타운' 개원

조계종 미륵사(주지 원일)는 10월 8일 나주 봉황면 송현리 일대에 18교구(교구본사 백양사) 가운데 처음으로 실비노인요양시설을 개원하고 노인복지사업을 시작했다.

개원식은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대종사, 시몽 스님(백양사 주지), 대오 스님(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을 비롯해,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신정훈 나주시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민요가수의 공연과 만담, 사물놀이패 공연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개원식, 개관테이프 커팅, 축하공연이 열렸다.

수산 스님은 축하사에서 "효자는 부모님을 편안히 모시는 것이 효자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이를 얻기 위한 거짓 효자들이 많다"며, "실버타운은 현대인을 위한 좋은 노인 봉양"이라고 치하했다.

원일 스님은 개원사에서 "백양실버타운은 한국불교가 지향하는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는 대중생활 불교의 도량이자, 안락한 노후생활 시설"이라며,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지역 의료계와 좋은 시



10월 8일 열린 백양실버타운 개원식 테이프 커팅 장면.

설, 자원봉사자들이 협력해 지역 최고의 시설로 가꿔가자"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대신한 치사에서 대오 스님은 "미래에 대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시설 개관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 말했다. 스님은 "백양실버타운은 단순한 노인요양이 아닌 일생을 사회에 헌신한 지역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라며, "노인복지요양으로 발전하도록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3층 규모의 백양실버타운은 생

활실 20개와, 휴게실 3개, 물리치료실과 재활실, 식당 등 부대시설을 갖춰 최대 50명 입소가 가능하다.

원장 포함 20여 명의 근무자가 입소자들을 보살피게 되며, 입소자는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이면 가능하다.

백양실버타운 관계자는 "입소 어르신에게 상담과 건강의료 서비스는 물론 심리재활 서비스, 여가 서비스, 정서관리 서비스, 안전 서비스 등을 입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 소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희망·안락주는 마음의 고향 되도록..."

금산사 추억의 템플스테이... 1409주년 개산대재 18일 봉행

수확을 앞둔 김제 들녘 한편 모악산 금산사(주지 원행)에서 추억이 가득 담긴 템플스테이가 개최됐다. 올해 2회를 맞은 금산사 추억의 템플스테이는 10월 4-5일 300여 참가자들이 함께했다. 행사는 이순호 거사의 산사체험 사진전, 신가림 연화선 작가의 설치미술과 전통등 전시, 텍스타일 전시, 참가자 공연 등이 펼쳐졌다.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템플스테이를 포함한 소중한 인연으로 다시 모였다"며, "산사체험이 일상생활에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문화사업단 진경 스님은 "외국인들의 사물놀이 공연에 감동을 받았다"며, "외국인들에게 불교문화 등 한국전통문화 홍보에 템플스테이가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원행 스님은 산사체험 진행에 매번 자원봉사로 참여한 해광 거사, 금산 거사, 대법성 보살, 이순호 거사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편 금산사는 1409주년 개산대재를 18일 대적광전에서 개최한다. 역대 금산사 조사스님들에게 차례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금산사 개산대재는 금산사를 창건한 진표율사의 장경정신을 계승하고 부처님



공연을 관람하는 금산사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자비와 보살행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행사가 될 예정이다.

원행 스님은 "1409년 역사를 가진 금산사가 중생들에게 희망과 안락을 전해주는 마음의 고향이 되도록 조사스님들의 정신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군산 성흥사 송월 스님

"성불 미뤄도 이 생서 전법하리라"

군산의 영산 오성산 주봉 아래 넓게 펼쳐진 서해바다를 바라보는 성흥사에서 송월 스님을 만났다.

송월 스님은 1992년 성흥사 주지로 부임했다. 당시 성흥사는 거의 폐찰에 가까웠다. 법당은 비가 새고, 도량은 황폐하고, 남아있던 신도는 2

가구에 불과했다. 스님은 도량 정비부터 서둘렀다. 현재의 관음전과 요사채를 완성하고 본격적인 포교에 나서 현재 성흥사 신도는 600가구에 이른다.

치게 공격적이라 문서포교를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스님은 돈이 조금씩 모였을 때마다 <신해행중> <울지 말고 열 불 쬐 해봐> <불교학개관> 등 불교교구 등을 직접 편집하고 인쇄한 10여 종 저서를 시청, 군, 교도소, 군산대학교 등에 무료로

보급했다. 이제는 군산시내 집집마다 스님의 책 한권쯤은 누구나 보유하고 있을 정도다.

한국에너지문화 교류회 초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님은 '1가정 부처님 말



신도회 불교대학으로 신행 기초 다져

송월 스님의 포교에 대한 의지는 누구나 감탄할 정도로 열정에 가득 차 있다. 신도조직을 중시한 스님은 관음회, 거사회 등 신도회를 조직하고 성흥사 불교대학을 설립했다.

신도회와 불교대학을 통해 신행활동 기초를 다진 송월 스님은 이어 극락조 합창단을 창단했다. 어린이 법회와 계절별 불교학교도 개설했다. 특히 한문학당은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남다른 공을 들였다. 당시 함께했던 청소년들이 성장해 이제는 어엿한 성흥사의 주축신도로 자리 잡았다.

스님은 군산대, 호원대 등 동아리도 지원하며 청년포교에 매진했다. 그 사이 스님은 태극권을 포교의 방편으로 삼아 시민회관 문화강좌, 교양강좌 등에 출강해 덕망을 높였다.

송월 스님은 지금까지 1만 권에 달하는 불서를 시내 전 지역에 무료로 보급했다.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 너무 모릅니다. 특히 개신교인들의 불교편협화가 도를 넘을 정도로 지나

춤 모시기 운동'도 전개했다. 송월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서예 작품을 1만점 가까이 무료로 보급했다.


송월 스님은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에 앞장서 왔다.

2006년도부터 스님은 그린피아 전북연맹 회장을 맡아 전북지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금강 살리기 운동, 철새 보호 운동 등 환경보전 계몽활동을 펼쳐왔다.

태고종 포교연구실장과 전북종무원 부원장 등 바쁜 소임 속에서도 스님은 군산교도소 법당에 8년째 법회를 열고 있다. 군경불자들 포교에도 매진해 공군 38전대 호국군정사 법회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전라북도 경찰청 경승으로도 활동 중이다. 또 군산대 평생교육원에도 출강해 부처님 가르침을 펴는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님 처소에 걸린 '내 성불한 생 닦추더라도 이 생에서 전법 포교하리라'는 글은 지역포교에 대한 스님의 열정을 대변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胎)중 아기(낙태·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영가천도전문도량 약천사 약천사 양력 10월 25일(토요일)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차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타당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고, 그 생명을 잃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태중아기를 위해 직접 기도하며 관육의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 2008년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음, 9월 27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10월 25일 (음, 9월 27일)
- 3재 : 양력 11월 8일(음, 10월 11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12월 6일 (음, 11월 9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당일 천도재는 별도상당)
 - * 위폐비, 아기옷 (무료)
- 준비물 : 사랑, 과자, 분유(우유) 등
 - * 7개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육을 합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 2) 49재를 올려서 천도에 주어야 합니다.
-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 4) 지장보살상을 시를 사서供奉합니다.
- 5) 부처님을 조상에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약천사 방생안내

11월 3일(음, 10월 6일 월요일)에 명영낙가사(강원도 강릉)로 방생법회를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안내 합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문 협창 02)3391-8523 / 011-9002-8523